

데스크 시국



채희중 사회부장 겸 편집부국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었던 지난해 1월, 공무원 신분인 상태에서 대선주자 선호도 1위에 오르는 당성을 일으켰다. 그즈음 '탄압하면 뜬다는데'라는 제목의 칼럼<광주일보 2021년 1월 13일자>을 쓴 적이 있다. 사회부 검찰 출입기자이던 지난 2003년 당시 윤석열(광주지검 특수부) 검사를 가끔 만났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현재의 검찰 취재 여건은 기자들이 공보담당 검사를 제외하고 수사 검사와의 접촉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당시는 기자들이 검사를 만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 특히 출입기자들은 기사 관련 정보가 많은 검사들을 특별 관리했는데, 사건을 검사들에게 배당하는 차장검사가 가장 중요했다. 이어 형사1부장, 특수부장, 특수부 부부장 검사 등도 주요 취재원이었다. 광주 지검 출입기자로서 만났던 당시 윤석열 검사는 특수부장 아래 직급인 부부장이었다. 비리 수사를 전담했던 만큼 취재자 들은 적도 있었지만 윤석열 부부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차담을 나누는 적도 있었다.

조국·추미애의 끝없는 견제구

기억을 더듬어 보면, 윤 부부장은 비리 사건 수사를 마치고 공식 보도자료를 내기 전에 출입기자에게 사건의 의미와 해당 사건에 수사진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검찰이 노련한 만큼 언론이 지역민에게 알려 달라는 요청도 빼놓지 않았다. 한 달에 한두 차례 만났던 출입기자로서는 사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윤 부부장이 일반

은펜칼럼



김진구 일선중 교감

"어이, 진구. 가만히 보면 말일세,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명강의 선생님이요 소문난 분이 교육행정에는 기대했던 것보다 아쉬운 경우가 있고, 교단 현장의 평판은 낮아도 의외로 교육정책이나 기획력, 추진력이 아주 뛰어난 분들이 있던데. 관직이라 할 때 '관' 자가 '벼슬 관' (官)인데 직책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버거워하는 장학관이 있는가 하면, 더 큰 정책을 맡겨도 되겠다 싶은 장학사가 있다고. 사람은 참 모르겠네..." 20여 년 전 초차 장학사 시절 어느 교육감이 들려주신 이야기다. 돌이켜 보면 나는 변변치 못한 축에 들었지만, 당시 교육청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나 후배 장학사 중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부러워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각자무지(角者無織)라 했다. 뿔을 가진 자는 이빨이 무디단다. 초식동물인 들소는 단단한 뿔이 있고, 육식동물인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있어서 방어하고 생존할 수 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아닌가. 각자 타고나고 익힌 재주나 능력이 다르다. 어떤 사람이 무슨 직책을 맡느냐에 따라 자신의 성공은 물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헌이 다르다. 조심스럽지만 우리 광주 교육계의 한 사례를 말하고자 한다.

기 고



정석운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식량 위기'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생산하는 밀은 세계 생산량의 30%를 차지한다. 실제 전쟁이 개시된 이후 세계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는 5월물 연질 저축소맥(고품질 밀) 가격이 6거래일 동안 매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 이런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밀 파종 시기가 다가오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농부들도 총을 들거나 해외로 피란을 떠나 농사를 지을 인력이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군이 흑해 항구도시를 점령해 통상 흑해를 통해 들어오는 농사 장비와 비료 등

국민이 키웠나 때려서 키웠나

검사와 달리 적이 없고, 업무에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물론 그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었고, 상당한 세월이 지나 TV를 통해서 접할 수 있었다. 유명인들은 상대의 탄압과 공격을 받으면 일단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다. 시ết말로 '때리면 뜬다'는 것인데, 뜨더라도 아무나 뜰 수는 없는 것이어서 탄압에 속절없이 스러지는 경우가 다반사일 것이다. 지난해 1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해 들어 실시된 열 번의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두 번이나 1위에 올랐다. 선거판에 오르지도 않은 최고위 공무원이 집권당의 대선주자를 앞서며 지지율 1위에 오른 것은 정치사에 없던 이변이었다. '떠도 너무 뜬' 터라 전문가들도 정확한 분석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정치적 식견과 예지력이 부족한 터라 칼럼 말미에 "윤석열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의 인기가 '때리면 커진다'는 정치공학적 원리에 의한 한때의 거품으로 끝날지, 아니면 집권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될지, 앞으로가 더 궁금해진다."라고 적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윤석열 후보의 승리, 뒤집어 말하면 이재명 후보의 패배 원인을 분석한 전문가들의 평론과 분석이 쏟아져 나왔다. 정권교체 열망에서부터 2030 남성, 사전투표 독려, 대장동 의혹, 서울 표심, 배우자 리스크, 부동산 민심 등이 주로 거론됐다. 이 같은 정치 전문가들의 논리적이고 종합적인 분석과 달리, 보고 느낀 대로 반응하는 저자거리 통신들은 윤석열 후보의 승리 요인을 상대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조국 사태와 추미애라는 두 단어로 제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애초 조국 사태가 없었다면 윤석열 후보가 선거판에 등장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단순 논리이다. 또 조국과 추미애 전 장관이 윤 후보에게 끈질기게 견제구를 던졌지만 견제사는커녕 추가 진주만 시켰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정치를 잘 모르는 필부들의 발상머리 논평으로 치부할 수 있을지라도,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수차례 추미애

전 장관의 견제와 공격을 받아 넘기면서 국민들에게는 도장을 찍어 온 것만큼은 사실이다. 애초 윤 후보가 대권 주자로 거론되던 지난 2020년 1월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별다른 두각을 내지 못하다가,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추·윤'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그해 6월 10%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정치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뒤, 지지율이 급상승해 그해 12월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에 오른다. 이후 2021년 오르락내리락하던 지지율은 총장직 사퇴 이후 30%를 훌쩍 뛰어넘었고, 여기에 조국·추미애 전 장관의 공세가 가세하자 더욱 상승세를 탄 것으로 당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물론 여론조사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윤 후보의 지지율은 조·추 전 장관과 밀접하게 연동된 것만은 사실이다.

정권교체로 변화 선택한 민심

반면 윤석열 후보와 그의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당선 원인은 한 가지로 집약된다.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유권자들이 정치 초보였던 윤 후보를 키우고, 당선시켰다는 것이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모든 것을 대변한다. 국민의 힘은 유권자 절반 이상이 원했던 '정권교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모든 역할을 집중했기 때문에,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라는 슬로건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때리면 커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통령은 국민이 키우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이제 전쟁 같았던 선거는 끝났다. 윤석열 후보는 유권자의 48.56%의 지지를 얻어 47.83%를 득표한 이재명 후보를 0.73%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성·지역·세대를 정확히 절반으로 가른 뼈 아픈 선거였다. 새 정부의 국정 화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통합이어야 하는 이유이다. 국민이 키운 대통령이라면 더욱 그렇다.

K-명장이 안내해 주는 진로 탐색

2021년부터 광주서부교육지원청 박주정 교육장이 작심하고 추진한 정책 중에 'K-명장과 함께하는 진로 캠프-진로와 직업, 청소년들이 길을 묻다'란 프로그램이 있다. 듣기만 해도 가슴 뛰는 진로 탐색 활동이다. 중학생 의회에서 미래 직업 트렌드를 설문 조사하여 가장 관심 있는 IT·로봇, 놀이(문화콘텐츠, 게임 방송 등), 소비·문화 등 10개 분야를 선정하고,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이 분야의 전국 명인·명장 인력풀을 구축하여 추진한 윈스톱 진로 캠프이다. 교육지원청과 학교, 명인·명장의 작업 공간에서 20차시로 진행된 이 진로 캠프는 개설된 순간 1분도 못 되어 신청 마감이 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고, 분야별 성장 기록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각종 매체에 탑재되어 있다. 매년 100여 명의 중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명인·명장을 만나 꿈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자. 이 얼마나 요동치는 희망이요 나라의 미래인가. 지켜보는 엄마 아빠의 기대와 보람 또한 찬란하지 않겠는가? 이 정책을 창안한 박 교육장은 줄곧 '콩나물 교육론'을 주장해 왔다. 콩나물시루는 밑 뿌리 똑이다. 햇수고처럼 보이는 물을 매일 주고, 보자기를 둘러 온기를 더하여 가다 보면 소복하게 자란다. 그는 학생들에게 주는 관심과 사랑이 물처럼 흘러 버려도 해도 기다려만 주면 콩나물처럼 자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콩나물 교육론은 듣기 좋은 구호성 이론이 아니라 몇 가지 숫자와 대안적 실천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기에 수승이 간다. 그는 평교사 시절, 결석과 가출을 반복한 여덟 명의 학생과 10평 아파트에서 6개월간 살면서 모두 장학생이나 모범 학생으로 변화시켰다. 이를 시작으로 광주

근교 용전에 '공동 학습장'을 만들어 9년 동안 숙식과 등하교를 함께하면서 707명의 방학하는 학생들을 콩나물처럼 자라게 한 사례는 눈물겹다. 교육 전문직에 입직해서도 꺼려하는 생활지도 업무만 18년 이상 하면서 수많은 제도와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국화시켰다. '급란교실'은 전국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위(Wee)센터의 모형이 되었고, 100명의 교사와 함께 사단법인 청소년교육원을 만들어 설립한 지금의 '용연학교'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장기 위탁 교육기관인 위스쿨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달려 간다, 끝까지 책임 진다, 모두가 함께 한다"는 '부르미 제도'는 24시간 대기하면서 30분 이내에 학생이나 학교 현장에 달려가는 민관 연계 위기 학생 신속 지원 제도이다. 그는 18년 동안 130여 차례 처참한 사고 현장에 달려가 수많은 시신을 수습하면서 안타까운 희생을 예방할 대책 마련에 헌신했다. 이번 K-명장 프로그램도 금년부터는 광주서부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머지않아 전국화될 것으로 보이기에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진로 분야까지 교육 전환을 아우르는 그의 정책이 기대된다. 요즘 학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와 코로나 양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보강을 몇 번 들어갔다. K-명장 진로 캠프를 생각하면서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 넥슨 창업자 김정주, 카이스트(Kaist) 이광형 총장 관련 유튜브를 많이 보도록 권유했다. 그들이 추구했고, 진행하고 있는 무모한 도전과 영동한 상상, 꿈 너머 꿈을 많이 흡수하기를 바라면서, 박주정 교육장의 콩나물 교육도 많은 유튜브에서 자라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식량 주권

을 가지러 갈 수도 없다. 식량 부족이 현실화하자 각국은 밭장을 걸고, 자국 식량 단속에 나섰다. 이집트는 밀과 밀가루, 콩 등의 수출을 금지했다. 비단 이번 전쟁뿐 아니라 세계적 이상 기후에 따른 자연재해가 늘고 코로나19 팬데믹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식량 주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곡물·식량 자급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식량 자급률은 45.8%로 국민이 먹는 식량의 절반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사료용 곡물까지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1%에 불과하고 심지어 20년 전 29.7%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다.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처럼 곡물 수입이 많은 나라는 식량 주권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간한 식품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 해 세계 식품 수입액은 1조 7500만 달러(약 1189조 989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14%나 상승한 역대 최고치이다. 이런 상

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 안보의 위험성이 커지면 일부 국가는 식량을 무기화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처럼 식량 자급률이 낮은 국가는 이런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된다. 과거 6·25 전쟁이나 보릿고개 등에서 겪었던 식량 부족은 우리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기에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한다. 언제나처럼 돈만 주면 쉽게 사먹을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정부는 곡물·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30년까지 밀·콩 자급률 확대 계획을 발표했지만 식량 주권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식량 자급률 제고는 단순히 농업계와 정부만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전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모두의 생존과 국가 존립을 위해서 식량 주권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식량·곡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보다 강도 높은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농업·농촌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농업 예산 및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 우리의 식량 주권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社說

광주 복합쇼핑몰, 도시 재생과 연계해 추진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시장 조사와 업계 동향 파악에 나서는가 하면 광주시와 국민의힘도 입지 검토나 관련 공청회 준비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롯데, 현대 등 유통 빅3로 꼽히는 업체들이 최근 복합쇼핑몰 건립에 대해 광주 지역 시장 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광주시의 허가 절차와 관련 부서 및 담당자를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관련 주기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2015년 광주에 특급호텔을 겸한 복합쇼핑몰을 추진했던 광주신세계의 경우 전반적인 하락장에도 대통령 선거 이후 이틀간 주가가 5% 가량 올랐다. 업계에서는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입지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이 영업 중인 유스퀘어(종합버스터미널) 인근과 광주의 관문인 송정

역 주변, 전남·일신 방직 부지, 어등산 관광단지 등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 광주역 일대는 부지가 협소하고, 광주시가 검토 중인 어등산 일대는 접근성이 떨어져 업계에서 꺼린다는 말도 나온다. 이용설 광주시장도 그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 이전부터 추진해 온 복합쇼핑몰을 어떤 유형으로, 어느 곳에 유치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며 "최근 업체 두 곳과 접촉했는데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건립 추진을 기정사실화했다. 복합쇼핑몰은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혀주고 시민 여가 시설을 확충하는 장점이 있지만 침체된 골목상권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시민 의견 수렴과 상생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대형 상권 형성이 쇠락한 구도심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도시 재생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에 새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다.

'화정동 붕괴 참사' 재발 방지책 마련 서둘러야

국도교통부 건설사고 조사위원회가 지난 1월 발생한 광주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그제 발표했다. 조사위가 두 달여 동안 붕괴 원인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무단 구조 변경과 불량 콘크리트 사용, 부실한 시공 관리 등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총체적 부실로 인한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는 것이다. 조사위는 39층 PIT층(전기배관 등 각종 설비를 모아두는 층) 바닥 시공 방식이 당초 설계와 달리 임의로 바뀌었고, 하부 세 개 층에 가설 지지대(동바리)가 조기 철거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기존 거푸집에서 데크 플레이트로 공법이 변경됐음에도 구조기술사의 안전성 검토와 감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15개 층의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나 타설 단계에서 콘크리트에 물을 섞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붕괴 참사를 수차례 겪었다. 1970년 서울시 외우 시민아파트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고 역시 고질적인 날림·부실 공사가 원인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붕괴 사고가 수년 간격으로 반복된다는 점이다.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을 무시한 관행과 속도전이 만연한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원시적인 붕괴 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전국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무단 구조 변경 등이 있는지 양심적 점검이 조사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관리 강화나 하도급·감리제도 개선 등의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2012년 12월 말이었다. 연말연시 분위기에 들쭉 들쭉한 광주 시내에 어느 순간 '침묵의 도시'가 되었다. 성탄절이면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캐럴 소리가 사라졌고, 사람들 사이에 대화도 없어졌다. 광주뿐만 아니었다. 전남과 전북 등 호남 지역 대부분이 그랬다.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2012년 12월 19일 이후 호남의 표정이었다. 당시 선거 결과 호남 지역민들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90%가 넘는 표를 한 여당이 '젓갈짜'라는 호남 표심이 몽치면서 몰표는 아 준 호남 표심과 선거 결과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3.53% 포인트의 차이로 패하고 말았다. 몰표를 몰아주면서까지 정권교체를 기대했던 지역민은 허탈감과 상실감에 빠졌다. 엇그제 끝난 제20대 대선 결과를 보고 있자니 '데자뷰'처럼 제18대 대선이 떠올랐다. 이번 대선도 제18대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호남은 고립된 섬이 됐고, 지역민들은 상실감과 허탈감에 어찌할 줄 몰랐다. 특히 역대 대선에서 가장 적은 표차 이(24만7077표)로 패한 것에 더욱 억울

해하고 분노했다. 이런데도 대선에서 패한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분위기다. 당 지도부가 총 사퇴했지만, 내부적으로 '젓갈짜' (젓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역대 최소 표차 패배, 최다 득표 낙선 등이 근거다. 국민들이 수개월간 차디찬 거리에서 촛불을 들어 만들었던 정부다. 그리고 과반을 훌쩍 넘는 172석의 의석까지 몰아줬다. 한편 '가짜오자'는 호남 표심이 몽치면서 몰표를 아 준 호남 표심과 선거 결과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3.53% 포인트의 차이로 패하고 말았다. 몰표를 몰아주면서까지 정권교체를 기대했던 지역민은 허탈감과 상실감에 빠졌다. 엇그제 끝난 제20대 대선 결과를 보고 있자니 '데자뷰'처럼 제18대 대선이 떠올랐다. 이번 대선도 제18대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호남은 고립된 섬이 됐고, 지역민들은 상실감과 허탈감에 어찌할 줄 몰랐다. 특히 역대 대선에서 가장 적은 표차 이(24만7077표)로 패한 것에 더욱 억울

대선 '데자뷰'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구속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